

“가라”: 아담의 역할과 감성적 해석의 짐*

이종우 (홍익대)

I

이 논문의 목적은 밀튼의 『낙원상실』(*Paradise Lost*) 9권 초반부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담이 하고 있는 해석 작업의 온당성과 그 고민의 강도를 점검해 보는 데 있다. 이 장면에서 아담은 헤어져 따로 일하자는 이브의 생각을 돌이키는 데 실패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다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오”(God towards thee hath done his part, do thine; 9.375)¹⁾라고 말하면서 이브를 떠나보낸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 작품의 핵심사건 중의 하나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장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이브의 역할은 언급하지만

* 이 연구는 2005년도 홍익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밀튼 작품에 대한 모든 인용은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Hughes (Indianapolis: Odyssey, 1957)에 의거한다. 한글번역은 필자의 것임.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한 일일 수도 있지만 혼자 일하게 되는 이브에게 닥칠 위험에 대한 예방책임을 순간적으로나마 피해보자는 속셈에서 일부러 자신을 뺀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이브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곧바로 자신의 책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헤어짐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역할을 운위해야 하는 아담의 심정이 편치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브가 혼자 일하러 가는데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브를 붙잡아 놓아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내내 문제가 될 수 있음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류를 타락으로 이끈 원천적 선택의 시발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해석의 문제로 내놓아야 하는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이브와의 대화 초기에서부터 추적해 제대로 된 그의 위치와 고민의 영역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낙원상실』 9권의 아담과 이브가 헤어지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논의 방식은 타락을 이 작품 전개의 정점에 놓고 아담과 이브가 따로 일하기로 선택하는 행위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락의 결정적인 요인을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1950년대의 틸야드(E. M. W. Tillyard)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굳이 특정한 평자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수의 밀튼 독자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아담과 이브의 불완전한 도덕적 자질에 대한 접근에 맞서서 사건의 인과적 고리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아담과 이브가 도덕적 선택에서 실수는 했지만 린(Michael Lieb)이나 피쉬(Stanley Fish)의 주장(191; 531-32)에서 보이듯이 이들의 행위를 알레고리적 해석보다는 사건의 연속적인 과정을 가능케 한 극적 구조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낫다는 게 이들의 견해이다. 또한 콘즈(Thomas N. Corns)처럼 아담과 이브가 헤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작품의 흐름상 어차피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들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면 타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윤리적 오류를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73)하는 경

우도 있다. 이외에도 타락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약간 비껴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여성주의적 접근이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브의 태도에 매료되어 맥컬리(Diane Kelsey McColley)와 같이 여성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평자들은 예외없이 여기에서 이브가 견지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과 독립적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브의 도덕적 충분성에 대한 논란은 이래저래 이 장면에 대한 다른 논의들과 맞물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낙원상실』 9권 전반부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풍부한 것은 이 지점에서 극적 전개가 완전히 바뀌는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커(Arthur E. Barker)의 지적처럼 이 장면이 『낙원상실』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63). 이는 역설적으로 이 장면에 개입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아담의 태도에 대한 재론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9권으로 넘어오자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의 기조가 비극으로 바뀌면서 좀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 지점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오는 동안 어려운 고비 때마다 뮤즈에게 도움을 청해 큰 힘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밀튼은 이번에도 뮤즈의 도움을 청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시적 상상력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지옥까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비극적 서사시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밀튼에게 여간 긴장되는 상황이 아니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특사로 파견되어 아담을 교육했던 라파엘도 상황 전개의 급박성을 예견하며 아담과 이브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브리엘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망쳤던 사탄은 다시 에덴동산으로 돌아와 악의가 등등한 채 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헤어지는 장면의 대화를 지켜보는 모든 주체들은 이들의 선택을 이미 알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인류의 최초 조상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에 이들 부부의 결정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밀튼의 아담은 타락이 이루어지는 9권에서 두 번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

다. 한 번은 따로 떨어져 일하기를 원하는 이브를 보내야 할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금단의 열매를 따 먹으라는 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둘 다 아담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작품 전체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들은 이전 부분에 나타나 있는, 아담이 라파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습득의 담화 과정과는 다르며 호기심에 가득차 자신의 기원을 밝히는 이야기 과정과도 또 다르다. 여기서 아담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설득하느냐 아니면 설득당하느냐 하는 논쟁의 구조 속에 있다.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는 그 결정의 중요성만큼이나 의미있는 해석의 틀을 전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담은 이브와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당면한 사안에 대한 해석행위와 선택행위를 병행한다. 『낙원상실』 9권이 세 개의 커다란 논쟁 장면으로 진행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해석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밀튼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담이 논리적 해석에 감성적 해석을 뒤섞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이상하게도 아담은 이브의 생각에 논리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브를 제대로 인도해야 할 당위성 차원의 책임보다는 필요 이상이다 싶을 정도로 이브의 감정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서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브는 이러한 아담의 반응과 행위를 공격의 빌미로 삼아 재차 논리적 해석을 이어 간다. 이 과정에서 아담은 자신의 논리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브를 설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신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전개하기도 한다. 결국 아담은 이브를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는 마음 졸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과 후대의 독자들이 아담이 지고 있던 해석의 짐을 떠안은 형국으로 귀결된다. 혹자는 일방적으로 아담을 비난할 것이고 혹자는 아담도 알고 보면 그 상황의 피해자라며 그에게 연민의 눈길을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담이 서 있는 지점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규범적인 인식과 상황적 선택, 정의적 이해와 조건적 해석, 가부장적

권위와 가정적 자상함 사이에서 가장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이 이브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할 수 없었던 고뇌의 일면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이브가 그 본분을 다했거나 다하리라고 기대되듯이 아담 또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서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아담이 서 있는 이러한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담이 전개하는 해석 작업의 온당성 여부와 그 고민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담과 이브가 헤어져서 일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그 근본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에덴동산에 대한 물리적 반응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9권 초반부에서 사탄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에덴의 모습은 지상의 하늘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행복감을 자아낸다. 아담과 이브도 행복감에 젖어 동식물과 함께 창조주를 찬미하며 예배한다. 특히 에덴동산은 창조주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풍성함이 구석구석 녹아있는 낙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 풍성함은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상징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극복의 과정은 에덴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사실 에덴은 인간의 끊임없는 개입을 통해 그 자족적 완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잠시 에덴의 상쾌함을 즐긴 후 곧바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해 의논한다. 그 일과란 다름 아닌 풍성함이 지나쳐서 삶의 터전을 위협할 정도로 변해가는 에덴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의논은 인도자였던 라파엘이 떠난 이후 자신의 해석 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받는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의 해석적 권위는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의논의 출발선에서 아담이 아닌 이브가 먼저 삶의 환경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내놓는다. 굳이 아담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작품에서 적어도 삶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담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은 이브보다는 아담의 문제제기가 기대되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어지는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행스럽기는 하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브가 에덴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브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거의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무감마저 느끼는 듯이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브의 태도는 에덴의 급박성을 언급한 후 헤어져서 따로 일하지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이브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브의 설명대로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웃고 잡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이 방해를 받아 아침 일찍부터 일해 봤자 별 소득이 없이 일과가 끝나버리기 십상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상황인 셈이다. 효율성을 제고하지는 이브의 이러한 제안은 에덴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상적으로는 꽤나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핵심을 찌르는 듯이 보이는 이브의 대안 제시에 대해 아담 역시 수긍할 만한 탄탄한 논리로 대응한다. 아담은 일의 합목적성을 따져 봄으로써 이브의 해석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사안을 꺼내드는 것이다. 예컨대 이브가 일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제일 원인으로 지목한 달콤한 교제에 대해 아담은 상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의(定義)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결 세련된 논리적 깊이를 선보인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 때
먹는 것이든 마음의 양식인 대화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음 나누는 달콤한 교제든 간에
 그것을 방해할 정도로 엄격하게 노동을 강제하지는 않소
 웃음은 짐승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양식,
 사랑은 인생의 가장 낮은 목적은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귀찮은 노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
 이성과 연합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소

Yet not so strictly hath our Lord impos'd
 Labor, as to debar us when we need
 Refreshment, whether food, or talk between,
 Food of the mind, or this sweet intercourse
 Of looks and smiles, for smiles from Reason flow,
 To brute deni'd, and are of Love the food,
 Love not the lowest end of human life.
 For not to irksome toil, but to delight
 He made us, and delight to Reason join'd. (9.235-43)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브가 말한 대로 일과를 수행하는 동안 신체적, 정서적 접촉이 방해가 되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일의 속성이 다층적이다. 아담은 우선 노동을 이해할 때 활동적 범위를 넘어서서 관계적 영역을 아우르는 정의 방식을 취한다. 그는 아무리 일의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호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면서까지 일의 성과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위에 실존이, 생산에 올바른 관계 형성이 전제되는 노동이 진정한 노동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아담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사랑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서

적 교감이 필요한데 이 정서적 교환이 노동을 좀 방해했다고 해서 이 관계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은 이와 같이 일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브에게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의 설득력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힘을 얻는다. 여기에서 아담은 일이란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해 그것을 즐기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그렇기에 일에 대해 타락의 징표처럼 보이는 노역 혹은 범죄적 중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만일 이브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이런 부정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실 헌터(G. K. Hunter)의 지적대로 이브의 경우 일에 대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데(185), 아담은 일이 즐거움 그것도 이성과 합한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일의 본질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볼 때 이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본능에 기초한 합리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아담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브가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은 점은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담의 대답은 수긍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아담이 감성적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논의의 방향이 틀어지고 급기야는 이브를 떠나보내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아담은 이브가 언급했던 일의 효율성과는 별 상관없는 논점인 잠시 떨어져 있어 보는 것도 괜찮을 성 싶다는 이야기를 불쑥 꺼낸다. 그 이유인즉 헤어져 있어 보면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너무해 싫증이 나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소
교육이 때로는 최고의 사교인 법,
잠시의 별리(別離)는 달콤한 귀환을 재촉하기 때문이오

But if much converse perhaps
 Thee satiate, to short absence I could yield.
 For solitude sometimes is best society,
 And short retirement urges sweet return. (9.247-50)

이 발언에서 아담은 이브가 헤어져서 일하자는 진짜 의도가 혹시 자신과의 관계 특히 많은 대화에 싫증을 느껴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내비친다. 이는 이브가 왜 그러한 제안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아담의 이해가 일의 효율성에서부터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이브의 싫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잠시 떨어져 있어 봄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훨씬 달콤해지기를 기대하는 아담의 모습은 이브가 지금 자신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담의 마음 상태에 대해 레바드(Stella P. Revard)는 이브가 독립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에 상처를 받은 아담이 이브의 개인적 주체성에 대한 욕망을 사랑의 부족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73), 샴페인(Claudia M. Champagne)은 아담은 자신이 이브를 사랑하는 만큼 이브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브가 헤어지자고 하는 걸로 봐서 이브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9). 이들의 생각에 완전하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담의 마음 상태가 이성애에 근거한 논리적 견고함으로 무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브의 심기를 살피는 데 민감하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할 수 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심중을 두루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담이 이브의 논리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헤어지자고 한 이브의 제안은 낭만적이기보다는 에덴의 급박성에 반응하는 철저한 상황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남편으로서의 배려에서 나온 고민보다는 지나친 감성적 해석이 가져온 패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 순간에 아담이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감성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발언을 하자마자 아담은 자신의 이야기가 지닌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브의 위험성 운운하며 사태 악화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아담과 이브 사이에 있는 논리적, 감정적 골의 깊이만 늘이게 된다는 데 있다.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분석적으로 전달해 주지만 이는 오히려 이브를 자극하는 기제로 발전해 가고 마는 것이다. 아담은 라파엘이 경고한 대로 현재 에덴동산에는 아담 부부의 행복을 시기하는 무서운 적이 재앙을 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이브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편인 자신이 보호막으로서 이브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으므로 그 곁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한다.

당신에게 존재를 부여하고
 여전히 덮어주고 보호해 주는 신실한 사람 곁을 떠나지 마오.
 위험이나 치욕이 숨어 있는 곳에서는
 아내는 자기를 지켜주고 함께 최악을 감내하는
 남편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타당하오.

leave not the faithful side
 That gave thee being, still shades thee and protects.
 The Wife, where danger or dishonor lurks,
 Safest and seemliest by her Husband stays,
 Who guards her, or with her the worst endures. (9.265-69)

여기서 아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브가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적의 공격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이브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일 수 있어서 이후 이브의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부부 관계의 원론적 의미를 되새기는 이러한 접근은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설득적이다. 자신이 이브를 보호해야 하고 또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아담의 생각은 사탄이 아담을 처음 보는 순간 직감적인 통찰력을 통해 묘사하는 아담의 역량으로 보나 라파엘을 통해 교육받은 과정과 내용으로 보나 충분히 실현가능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브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이며 규범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브의 불완전한 정황을 고려하면 아담의 해결 방식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인식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브에게 적용해 실천하려는가 하는 의지이다. 실제로 아담은 자신의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브를 붙잡아 두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면 논리성에 감성적 접근을 뒤섞는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감성적 해석의 개입은 자신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브에 대한 아담의 반응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브는 적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아담의 말에 정색을 하며 반박한다. 적의 존재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를 피하기 위해 아담이 제시한 방법이 자신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듯해서 불쾌하다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에덴에서 이들 부부가 고통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며 설사 그러한 공격을 받는다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 운운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적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것인데 공연히 호들갑을 떠한다는 게 이브의 판단이다. 더구나 이브가 제일 크게 언짢아하는 것은 자신의 신이나 사랑이 적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흔들릴 수 있다고 의심받는 부분이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아담이 제시한 방책이 이브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브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따라서 어떻게 아내를 의심할 생각을 했는지 따져 묻는다. 한마디로 “다정한”(dear; 9.289) 아내인 자신을 남편이 “잘못 이해”(misthought; 9.289)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브의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적절한지 따지기에 앞서 이브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아담의 발언이 억울할 수도 있다. 더구나 꿈에 대한 해석 과정과는 달리 9권 초반부에서 보이는 이브의 상황 인식이나 논리적 타당성이 점점 진전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브의 반발이 수궁이 가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아담이 제대로 반응해야 사태가 잘 수습되기 마련인데 여기

서 아담의 대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내레이터가 언급하고 있듯이 아담은 쫓기듯 “위무하는 말”(healing words; 9.290)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따뜻한 말을 이어가는 것은 미덕일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것은 가정적인 아담으로서는 감성적 해석의 짐을 벗는 실제적이며 유용한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온정적 마음이 지나쳐서 고쳐주어야 할 이브의 논리마저도 냉정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다루어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담은 의심받아 불쾌해 하는 이브에게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건 그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고 서둘러 수습하고 나선다. 이 와중에 아담은 아내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는 감성적 접근 탓인지 그녀가 죄와 가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브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논리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모습마저 보인다. 이 말은 이브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기에 사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게다가 죄와 가책의 경우 현재의 에덴 상황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타락하면 얼마든지 부닥치게 될 실제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담은 이브가 의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한 사안 즉 죽음이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아내의 절조를 의심하느냐는 등 설사적이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해와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데 무슨 능력이 문제가 되느냐는 등 하는 사안에 대해 그 오류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주는 일을 최소한 먼저 해야 한다. 이브가 고통이나 죽음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이 근거가 희박한 추정에 의해 자신이 의심받는 데 대한 반박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감성적 개입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한 아담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브를 달래면서 논리의 전이를 통해 다음으로 나가고자 애를 쓴다. 이 또한 이전의 상황들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이브의 대응에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는 구조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아담은 이브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적이 노리는 시도 그 자체를 막아보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아담의 말인즉 유혹자는 쓸데없이 피유혹자의 명예, 신의, 능력 등을 시험해 보는데 피유혹자는 이러한 가해에 대해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경멸하며 분개한다는 것이다. 아담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유혹자의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브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체로는 한층 세련되고 속깊은 논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심하게 아내의 감정까지 고려하는 자상함이 배어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적어도 논리의 적합성은 모르겠으나 아내의 감정에 친절하게 신경을 쓰는 감성적인 민감한 반응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담이 과연 자신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지금 아담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사안은 이브를 자기 곁에 뚫으로써 사탄의 위험한 공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아담의 뒤이은 발언을 보면 그는 사탄의 간악함과 공세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사탄의 위해(危害)로부터 이브를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합리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의 아담의 모습은 이브가 취해야 할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조언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브의 감정의 상태를 진정시키고자 연연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의도와는 달리 아담의 문제제기로 오히려 의심 받았다고 불쾌해 하는 이브의 감정의 통로를 다른 데로 돌릴 심산이었으면 사탄의 무서운 적의와 막강한 공격력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브도 사탄의 존재와 그 파괴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기에 적어도 적에 대한 경각심은 분명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성적 해석의 짐을 지고 버거워 하는 아담은 말을 끊어야 할 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끊어야 할 때에서조차도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테면 아담은 다시 한번 부부 관계를 매개로 해 이브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그녀가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겠다는 의지만 불태우는 계기를 만든다.

나는 당신 쳐다보면 힘을 얻어
 덕에 덕을 더해가고 있으며, 당신 앞에서는
 보다 현명하고 보다 조심성 있고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강해진다오,

.....

내가 함께 할 때 당신은 어찌서 나와 동일한 생각을
 느끼지 못하며, 당신의 덕의 시련에는 내가 최상의 증인인데
 어찌서 나와 함께 시련을 같이 하려 하지 않소

I from the influence of thy looks receive
 Access in every Virtue, in thy sight
 More wise, more watchful, stronger, if need were
 Of outward strength,

.....

Why shouldst not thou like sense within thee feel
 When I am present, and thy trial choose
 With me, best witness of thy Virtue tri'd. (9.309-17)

이 말을 통해 아담은 돕는 배필의 의미를 되새기며 둘이 함께 함으로써 공동의 적인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담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적을 대처하는 데 긴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담이 이 말을 이브가 얼마나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브에게 설득할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아담의 입장에서 이브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여 떠나지 말아야만 하기에 논리의 적합성을 떠나 설득적 의지에 관한 사안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면 아담 자신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본심이 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발언의 배경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브가 있으면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브도 아담과 함께 있으면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이브가 없으면 자신이 불안해 질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효율성을 위해서 헤어져 일하자는 이브의 첫

문제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시점에서 정서적인 개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이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서 이러한 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의 설득적 추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것은 아담이 이브를 떠나보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담이 이브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을 요구하지만 신체적 근접성이 정서적 친밀성으로 반드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진의와 설득적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아담의 주장대로 이브와의 정서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을 막는 방법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일치를 바라는 동기가 여전히 문제일 수 있다. 베넷(Diana Trevino Benet)의 지적처럼 『낙원상실』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브와의 낭만적 사랑 때문에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60), 현재 장면이 바로 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이브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브에 대한 감정적 이끌림에서 비롯되었다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근접해 있고 정신적으로 일치해도 이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담의 판단 착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은 부부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브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브는 부부의 사랑을 수긍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의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아담의 말을 받아 이브는 근본적인 행복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 자신들의 삶의 조건이 어디로 가든지 적의 유혹에 시달리며 더군다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적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따진다. 그러면서 아담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는데, 이는 이브를 설득하려는 아담의 시도가 실패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탄이 이들 부부의 고결성을 더럽히기 위해서 공격하겠지만 역으로 공격하는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기에 그들이 사탄의 공격을 피하거나 두려워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오히려 아담과 이브의 경우 사탄의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명예는 고양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 이브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이브의 논리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아담이 정서적 개입을 통해 헹글어 놓은 논리를 하나

하나 따져 나가는 능력이다. 때로는 적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담의 논리를 조목조목 잘 반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의니 사랑이니 미덕이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what is Faith, Love, Virtue unassay'd / Alone, without exterior help sustain'd?”; 9.335-36)는 이브의 반문은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을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대목이기도 하다. 타락을 전혀 꾀념치 않은 대담함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논리의 울림이 워낙 커 이후 아담의 그 어떤 대응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결국 이브는 타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듯 자신의 논리를 종합하여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다. 혼자든 둘이든 그들의 삶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에덴이 불완전하다면 행복 또한 보장받을 수 없고 따라서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담과의 대화에서 상황적 접근을 시도했던 이브가 이 부분에서 에덴을 정의할 때는 에덴 고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의적 차원에서 다가가고 있다(Leonard 279)고 할 수 있다. 이브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에서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있느냐 아니냐의 조건에 구애받는 불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아담은 부부가 같이 있음으로써 다른 유익한 것들이 따라오는 수확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이브는 그것이 오히려 제한과 구속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느낀다. 적어도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행복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아담과 이브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브가 가정법을 쓰면서 에덴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에덴의 상태를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이브가 에덴의 최종적 완성은 인간의 개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이브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에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면 여기서의 관건은 부부의 근접성이 아니라 에덴의 환경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식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덴동산을 잘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헤어져서 일하는 것이 에덴의 즉자성에 훨씬 능률적

으로 반응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헤어져 일하는 것이 이 동산에서의 행복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로 떨어져 일하는 행위가 자기 성취로 정당하게 평가받게 될 때 비로소 에덴이 그 의미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이브의 확신의 깊이는 그래서 아담의 대응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남편과 헤어져서 일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시점에서 아담의 대응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브는 적어도 헤어져 일하는 것에 대해 거의 확신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대화가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에 여기에서 아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브가 혼자 노동을 할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담은 에덴의 근본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브의 논리에 “열렬하게”(fervently; 342) 반박하지만 이브를 붙잡아 두려는 의지는 점점 떨어져 간다. 설사 그 의지가 여전하다고 해도 이브의 마음을 되돌리기에선 논리적 면에서도 점점 일관성을 잃어 가는 형상이다.

오 여자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대로가
가장 좋은 것, 그 창조의 손이
창조물을 하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으니.

O Woman, best are all things as the will
Of God ordain'd them, his creating hand
Nothing imperfect or deficient left
Of all that he Created. (9.343-46)

이 상황에서 아담은 거의 화나기 직전 정도의 감정으로 “여자여”라고 거칠게 외친다. 적극적으로 이브에게 반응하려고 하지만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덴이 불완전하다면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는 이브의 말에 아담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단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하지만 여기서 감성적 해석의 도를 높여가는 아담

은 이브의 말에 개괄적으로는 그런대로 대답하지만 부부가 각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에덴이라는 이브의 빼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응답하지 못한다. 에덴의 완벽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 눈에 띄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성애에 따라 잘 행동하면 자유도 누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이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아담의 뒤이은 합리적 제안조차도 작게 들리고 만다.

물론 이 지점에서 아담은 이러한 이성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밝히는 지혜를 보인다(9.360-62). 이성의 중요성과 능력을 언급한 바 있는 아담은 이성의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이성이 속는 경우가 대부분 “주의 받은 대로 / 엄중히 경계하지 않아서”(Not keeping strictest watch, as she was warn'd; 9.363)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역으로 마음을 다잡아 적의 유혹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힘주어 말한다.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타락을 막는 지혜로운 길임을 아담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충고 즉,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기 마련인 유혹을 구하지 말라는 발언은 설득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아담이 이성적 각성의 긴요함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서 이브에게 이성의 현실적 결과인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다시 논지를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담은 “만일 당신의 절조를 인정받고 싶다면 / 먼저 당신의 순종을 보이시오 알 수 있는 사람이 / 당신이 유혹받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는 누가 증명하겠소?”(Wouldst thou approve thy constancy, approve / First thy obedience; th' other who can know, / Not seeing thee attempted, who attest?; 9.367-69)라고 말하며 순종과 검증을 요구하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그 열매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맥락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 아담 아니면 이성인지가 불분명한데다가(Schoenfeldt

367), 이브가 실제로 시험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 아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분명히 억지인 측면이 있다. 이는 아담의 희망과는 달리 이브의 감정적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녀에게 불을 붙이는 꼴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담이 자신의 발언을 종결짓는 곳인데 이는 이브와 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담은 이성도 기만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대목에서 말을 맺었어야 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고 만다. 마지못해서긴 하지만 아담은 헤어져 일하자는 이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시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미리 주의 받은
당신이 느끼는 안전보다 덜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
가오 억지로 머무르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소
타고난 순결을 갖고 가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덕을 총력적으로 꺼내 의존하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역할을 다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오.

But if thou think, trial unsought may find
Us both securer than thus warn'd thou seem'st,
Go; for thy stay, not free, absents thee more;
Go in thy native innocence, rely
On what thou hast of virtue, summon all,
For God towards thee hath done his part do thine. (9.370-75)

이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된다. 아담이 이브의 순종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시련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억지로 머무는 것보다 자유롭게 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불쑥 꺼냈기 때문이다. 아담 자신은 수사적 화법을 사용해 이브의 생각을 돌이킬 심산이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브는 아담의 이야기

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기로 결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를테면 아담은 이브가 헤어져 일할 계획을 재고하길 바랐지만 이브는 아담의 가라는 발언을 끝이 끝대로 믿어 아담이 승낙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로웬스타인(David Loewenstein)의 지적대로 아담이 이브의 불쾌감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105). 한마디로 아담의 과도한 정서적 해석의 개입이 이들 부부가 헤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이다. 여기서도 아담은 이전의 대화 부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후에 이브의 마음을 살피며 그녀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내용을 부연하는 감정적 개입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담은 이브가 제기했던 문제와 상관없이 구하지 않은 시련과 자유에 관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그러나”와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과 같은 역접과 조건절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브의 마음을 살피는 아담의 언술적 기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브의 심정을 고려하는 세심함까지는 좋았는데 아담의 패착은 이브의 생각을 돌이킬 의도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듯한 태도이다. 예컨대 아담은 시련의 안전성이나 억지로 머무는 것에 대해 이브가 견해를 달리한다면 그보다는 이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말한다. 아담의 진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자신과 이브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브를 자기 곁에 두려고 현재까지 힘들게 대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브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면 그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자유없이 억지로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담이 이브의 동의 없이 그녀와 같이 있는 상황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자유 운운하는 것은 초점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느낌을 준다. 아담의 말을 들어 보면 그 속에 이브가 자유롭게 기꺼이 자신과 함께 있어 주리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빨리 헤어지자고 재촉하는 소리가 더 세게 울리는 것은 아담의 정서적 개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브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아담의 행동과 생각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

는다는 역설적 증거로, 이는 물리적인 근접성이 심정적 친밀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에 대한 아담의 정서적 반응인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아담이 이브의 희망 사항 즉 혼자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그녀를 유혹하거나 헛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Carrithers, Jr. & Hardy, Jr. 95). 여기에서 아담은 자신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브가 그렇게 바라는 독립적 노동의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아담의 조언이나 결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브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은 대화를 통해 좀더 점점받아야 할 이브의 희망을 자신조차도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부추겨서 그녀가 혼자 일하러 가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점에서 아담의 정서적 개입의 절정은 “가오”, “가오”, “의존 하오”, “하오”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령조의 어투에 잘 드러나 있다. 아담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브가 헤어져야 할 이유를 뒤늦게 이야기하는 듯이 하면서 유난히도 정서적 함의가 물씬 풍기는 명령을 늘어놓는다. 문제는 르왈스키(Barbara K. Lewalski)의 말대로 아담이 자꾸 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브가 머무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235). 이런 상황에서는 이브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브가 떠나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며 그것은 아담의 모습 중에서도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아담의 지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해석을 하는 아담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서적인 해석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이성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서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헤어져서 일하는 이들 부부 앞에는 유혹과 타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아담의 감성적 해석의 집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

III

아담은 자신의 손을 살며시 빼고는 숲의 선녀처럼 용맹한 여신처럼 혼자 숲 속을 향해 가는 이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에 대해 내레이터는 아담은 한참동안 이브를 기쁘게 바라보면서도 그녀가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며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을 몇 번이나 되풀이한다고 설명한다. 아름다우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이브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조속히 돌아왔으면 하는 초조한 심정이 교차하고 있다. 아마 아담의 마음에는 혼자 일해 보겠다고 떠나는 아내에 대한 살가운 시선만큼이나 본능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레이터의 설명만으로는 담기 힘든 훨씬 복잡한 내면의 자기 표출 과정이 있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담 앞에는 그 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의 오판을 질책하는 분노가 더 많이 놓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이 이브를 떠나보낸 이 사건은 타락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혼자 일하던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당연히 질문하게 되는 것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아담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브의 책임보다는 아담의 책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담은 이 작품의 전반부에 걸쳐 천사 라파엘로부터 간교한 유혹자의 존재와 타락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지혜롭게 이브를 인도하는 것이다. 특히 8권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이 받은 교육의 핵심은 부부 관계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성에 기초해서 이브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사안이었다. 이브를 향한 아담의 태도나 접근 방식을 보면 그가 필요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습득했는지는 회의적이지만 그렇다고 배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8권 마지막에서 아담은 라파엘로부터 서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자유의지에 달렸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충고를 받는데, 이는 아담이 타락에 관련된 지식을 잘 적용해야 하는 위치에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담의 선택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9권에서 아담과 이브가 헤어지는 장면에는 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선택의 과정이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브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이브의 논리나 의지가 작용했기도 하지만 아담의 판단 착오에 기인하는 요소가 더 많다는 점이다. 사실 아담이 제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브는 혼자 떠나 타락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브가 떠날 때 내레이터가 설명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브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레 밀고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순종적인(“submiss”; 9.377)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아담이 인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아담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이브 자신의 말을 들어 봐도 아담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는 명백한 의사를 담고 있는 “허락”(permission; 9.378)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게다가 아담으로부터 적의 존재에 대한 주의까지 받았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에서 남편의 허락 하에 떠난다는 게 이브의 생각이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브의 반응을 얼마나 직설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브가 어떤 형태로든 아담의 허락을 받고 싶어 했고 아담의 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가라고 한 이야기가 한번 떠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브는 얼마든지 그것을 허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본심을 숨기는 듯한 아담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대화의 마지막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아담의 올바른 인도가 왜 중요한지와 함께 이브가 얼마나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드러나 있다. 대화의 초반부에서부터 이브는 에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그러니 좀 생각해 보거나 / 아니면 우선 내 마음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을 / 들어 보세요”(Thou therefore now advise / Or hear what to my mind first thoughts present, / Let us divide our labors; 9.212-14)라고 말함으로써 아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브는 처음부터 아담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브가 자신의 의견을 먼저 개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제안일 뿐, 아

답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따를 의향이 있다는 열린 자세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오류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논리적 해석과 정서적 해석이 뒤섞여 이브가 떠나갈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뒤섞이는 과정에서 아담은 이브가 제기하고 대응하는 핵심적 사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초점을 흐리게 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범함으로써 이브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아담의 정서적 개입으로 야기된 논리의 전이 과정을 요약하면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것과 따로 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일의 효율성과 본래적 목적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 대화의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헤어지는 것을 승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쟁점으로 마무리된다. 논리 전개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담의 지나친 정서적 개입으로 논리적 흐름이 뒤틀리면서 이브의 감정적 반발을 자극하고 급기야는 그녀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아담의 정서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내레이터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아담은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세찬 감정으로 끝낸다. 내레이터가 잘 포착하고 있듯이 대화가 전개되면 될수록 아담의 감정의 높이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담의 감정의 상승과 헤어져 혼자 일하겠다는 이브의 의지가 정비례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면 아담의 지나친 정서적 개입이 이브에게 부정적 영향 즉 설득으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의 자극으로 작용해 이브가 떠나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담은 본질적으로 정서적 해석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낙원상실』 8권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이브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나 실제로 이브를 보고 느끼는 감정에서 드러나듯이 거의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다. 사실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이브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따라서 이브를 바라보는 아담의 시선이나 태도 또한 논리적인 잣대로

만 재단해서 아담의 감정적 경도 내지는 낭만적 실수 운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논리를 넘어선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브를 향한 아담의 감성적 행위나 해석이 전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내로서의 이브에 대한 감성적 친밀함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아담이 해야 할 의무마저 아내에 대한 심정적 이해라는 명분으로 가려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이나 논리적 대응을 시도하는 이브의 태도를 고려하면 9권의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담에게 필요한 자질은 자신의 본분에 대한 자각과 논리적 단호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브를 설득하는 데 논리보다는 감성적 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아담이 그 일조차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브를 대하는 아담의 방식, 예컨대 모든 생물보다 월등하여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이브, 불멸의 하와 등의 표현을 보면 이는 단순히 설득을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상화에 가깝다. 이브를 이상의 차원까지 격상시키는 행위는 논리적 단호함에 실패한 아담이 감성적 부드러움에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논리적 해석에 감성적 대응이 중첩됨으로써 양쪽의 어디로부터도 해석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아담의 예정된 수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아담은 이브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녀를 잘 설득해 타락에 이르지 않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막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낙원상실』 9권에서 제시된 서사시의 주인공인 영웅적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 순교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된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는 진정한 순교자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담이 영웅적 순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브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브로부터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고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이다. 그렇게 고민의 질과 양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브를 올바르게 인도하면 아담은 서사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이 이브의 감정에 흔들리는 감성적 해석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전사로서의 윤리적, 이성적 해석에 의해서 이브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영웅

적 순교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담은 아직은 감성적 해석의 짐을 무겁게 느끼고 있을 뿐인데 기실 여기에 『낙원상실』 9권 헤어지는 장면에서 나타난 아담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존 밀튼, 『낙원상실』, 아담의 역할, 감성적 해석의 짐, 헤어지는 장면, 선택의 과정, 도덕적 전사, 설득의 수사학

인용문헌

- Barker, Arthur E. "Paradise Lost': The Relevance of Regeneration." *Paradise Lost: A Tercentenary Tribute*. Ed. Balachandra Rajan. Toronto: U of Toronto P, 1969. 48-78.
- Benet, Diana Trevino. "All in All': The Heart of Bliss." *All in All': Unity, Diversity, and the Miltonic Perspective*. Ed. Charles W. Durham and Kristin A. Pruitt. London: Associated UP, 1999. 48-66.
- Carrithers, Gale H., Jr. & James D. Hardy, Jr. *Milton and the Hermeneutic Journe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94.
- Champagne, Claudia M. "Adam and His 'Other Self': A Lacanian Study." *Paradise Lost*. Ed. William Zunder. London: Macmillan, 1999. 117-135.
- Corns, Thomas N. *Regaining Paradise Lost*. London: Longman, 1994.
- Fish, Stanley. *How Milton Works*. Cambridge, Mass.: Harvard UP, 2001.
- Hunter, G. K. *Paradise Lost*.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 Lieb, Michael. *The Dialectics of Creation: Patterns of Birth and Regeneration in "Paradise Lost."*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70.

- Leonard, John. *Naming in Paradise: Milton and the Language of Adam and Eve*. Oxford: Clarendon P, 1990.
- Lewalski, Barbara K. *Paradise Lost and the Rhetoric of Literary Forms*. Princeton: Princeton UP, 1985.
- Loewenstein, David. *Milton: Paradise Lost*.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McColley, Diane Kelsey. *Milton's Eve*. Urbana: U of Illinois P, 1983.
- Milton, Joh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Hughes. Indianapolis: Odyssey, 1957.
- Revard, Stella P. “Eve and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in *Paradise Lost*.” *PMLA* 88 (1973): 69-78.
- Schoenfeldt, Michael. “Obedience and Autonomy in *Paradise Lost*.” *A Companion to Milton*. Ed. Thomas N. Corns. Oxford: Blackwell, 2001. 363-379.
- Tillyard, E. M. W. *Studies in Milton*. London: Chatto & Windus, 1951.

“Go”: Adam’s Part and the Burden of Emotional Interpretation

Abstract

Jong-Woo Lee

This essay examines how proper the interpretation of Adam is and how complicated the interpretative contexts are that he has confronted in the separation scene of *Paradise Lost* Book 9. In this scene Adam debates with Eve over whether they work in different places of Eden. While Eve suggests separation to raise work efficiency, Adam attempts to persuade Eve to work together in terms of the purpose of the work and the prevention of Satan’s temptation. After a relatively long debate, Adam reluctantly and curiously consents to find a way in which Eve can labour separately from Adam in favor of her own independence. Allowing Eve to leave a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Adam says, “For God towards thee hath done his part, do thine.” Here Adam emphasizes that Eve should carry out the work with her own virtue and implies that the potential or actual Fall lies in her responsibility.

However, an important issue remains: “where Adam’s part is.” In fact, Adam has been given gifts, though incomplete, to lead Eve and thus should do his part in a proper way, especially in dealing with the matters of greatly influencing their life in Eden, where Satan is desperately looking for a chance to destroy their happiness. Nevertheless, Adam fails to lead Eve to be together and accordingly lets her be exposed to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Fall. This is because Adam makes passionate responses to Eve and drags emotional interpretations into very decisive moments after his persuasive arguments towards her. He tends to miss the point of what he is actually to do by jumbling

up rational arguments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 In Adam's case, the emotional interpretations are not desirable because they are associated with being dominated by Eve's process of feeling rather than with understanding her state of mind. Due to the introduction of emotional responses, he suddenly abandons his on-going argument and poses an entirely new issue, which leads to losing the thread of his logic. Conversely Eve proceeds to advocate the necessity and sufficiency of her independence, being epitomized as working alone, taking advantage of Adam's incorrect emotional interpretation. In the end Adam permits Eve to get her own way and his concession of this results in bringing about the Fall. Adam should have done his part but he fails because of his excessive emotional approaches. For this reason Adam cannot be an embodiment of "heroic martyrdom," an epic hero proposed in the invocation of Book 9, even though he can be reborn as a great hero of moral warrior by articulating his problems and bearing obviously his responsibilities.

Key Words

John Milton. *Paradise Lost*, Adam's part, burden of emotional interpretation, separation scene, process of choice, moral warrior, rhetoric of persuasion